

# 광주시-IBK기업은행 '스타트업 육성' 나선다

금남로에 'IBK 창공 광주센터' 개소 멘토링·컨설팅 등 창업육성플랫폼 AI 등 지역 스타트업 10곳 1기 선정

광주시와 기업은행이 'IBK 창공 광주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지역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

'IBK 창공'은 '창공(創工)을 통해 창공(蒼空)으로 비상하라'는 염원을 담은 '창업(創業) 공장(工場)'을 의미하며 창업기업이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투·융자 금융서비스, 멘토링·컨설팅, IR(기업설명, investor relations), 판로개척 등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지

원하는 창업육성 플랫폼이다.

광주시와 IBK기업은행은 26일 동구 금남로 기업은행 광주지점에서 'IBK 창공 광주센터' 개소식을 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정성택 전남대 총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김인태 IBK기업은행 부행장, IBK 창공 광주 1기 대표 10명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IBK 창공 광주센터'는 IBK기업은행이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포(2017년 12월), 구로(2018년 10월), 부산(2019년 5월), 대전(2022년 1월)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개소한 정규센터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 2월 첫

'IBK 창공' 개소한 이래 877개 기업을 선정해 3727억원의 대출과 1조3481억원의 투자유치를 지원했다. 또 금융지원 외에도 총 1만1529건의 멘토링, 컨설팅, IR(기업설명)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는 축적된 기업은행의 IBK 창공 노하우를 지역으로 확산해 성장 잠재력이 큰 우수 스타트업이 지역에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IBK 창공 광주 1기'는 지난 6월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친환경 분야 등 광주 스타트업 10곳이 선발됐다. 1기 선정

기업은 △나노소재 조직 재생 치료제 개발 기업 '나노바이오시스템' △약물효과 인공지능(AI) 시뮬레이션 개발 기업 '레이메드' △의료 인공지능(AI) 문진 솔루션 기업 '맨인블록' △자기장을 이용한 약물전달 의료기기 개발 기업 '바이오트코리아' △인공지능(AI) 기반특허 명세서 자동작성 솔루션 기업 '비투윈솔루션' △현장형 나노섬유 의료기기 개발 기업 '아이메디텍' △인공지능(AI) 감정인식 음악 추천 서비스 개발 기업 '인디제이' △친환경 미생물 농약 개발 기업 '젠153바이오텍' △인공지능(AI) 기반 허브리스 전기전자 개발 기업 '코리아모빌리티' △영유아 인공지능(AI) 행동 분석 개발

기업 '플레이태그' 등이다.

광주시는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5000억원 투자펀드 조성, 광주역 창업밸리 조성, 지역 내 창업생태계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창업페스티벌, 도시 전체를 실증 시험무대(테스트베드)로 만드는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 등 다양한 창업기업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시는 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지역경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IBK 창공 광주센터가 창업기업들을 든든하게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병하기자

## 전남도 '24시간 콜센터' 복지사각지대 해소

3년간 연중무휴...2176건 상담 긴급생계비 및 생필품 등 지원

전남도가 복지 위기가구의 신속 발굴 및 지원을 위한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120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는 지난 2022년 8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2년 9월 문을 열고 2176건의 상담을 접수해 처리했다. 이 중 397건은 긴급복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민간 자원 연계, 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위기 가구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로 건강을 잃고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은 1인

중장년 A씨는 120콜센터를 통해 긴급 생계비 등 지원을 받았다. 생활비와 반찬도 없어 끼니를 못 챙겨 먹고 있는 사실을 안 이웃 주민이 120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다.

이에 관할 군에서는 해당 가정을 방문해 복지상담을 진행한 후 △생계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민간자원(생필품 등) 지원 등에 나섰다. A씨는 현재는 건강을 회복하고 구직활동을 하며 위기 상황을 극복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120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이어졌다. 상담 내용을 전달받은 시군에서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도움과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전했다.

오지현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26일 광주여대시립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린 '제39회 전국지적발달 장애인복지대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전국 지적 발달장애인 복지대회 광주시 개최

25-27일 광주여대 체육관서 사회참여·복지증진 등 모색

전국의 지적발달장애인들이 광주에서 권익옹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대회를 열고 있다.

광주시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 등지에서 '제39회 전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가 열리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회는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광주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주관하며, 광주시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매년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열리는 '전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권익옹호 및 복지증진을 모색한다. 광주에서는 지난 2005년 제22회 대회 이후 19년 만이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600여명이 참가해 발달장애인 자기권리 주장대회, 자조단체 '연결고리' 토론회,

광주지역 문화·관광 탐방 등이 진행된다.

자기권리 주장대회는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눠 진행되며, 자신들만의 방법을 통해 자기권리를 발표한다.

자조단체 '연결고리' 토론회는 발달장애인 100명이 참석해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주제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한다. 자조단체 '연결고리'는 전국 60개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대표 1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지역에서 다양한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을 하고 있다.

제39회 전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 기념식은 26일 오전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렸다.

기념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박병규 광산구청장, 이정식(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 한동기 광주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 각 시·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 등 14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공연, 개회선언, 복지유공자 표창, 대회사 및 환영사, 발달장애인 권리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강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익·복지 향상,

인식 개선에 기여한 강지윤 광주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사회복지사, 박영환 광주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서귀주부 사무국장, 정규연 광주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사, 한상필 광주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광산구지부 사무국장, 박성태 씨 등 5명에게 광주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강 시장은 "이번 대회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인식 개선은 물론 모든 사람이 차별 없고 함께 돌보는 도시를 만들자는 다짐의 자리이다"며 "광주는 80년 5·18 때 고립되고 소외됐기에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역사의 교훈을 통해 광주는 차별 없는 돌봄을 통한 포용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함께 힘 모아 가자"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 돌봄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으며,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를 확대한 '최중증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를 시작해 대한민국의 표준정책으로 자리잡았다.

노병하기자

## 광주시, 유기 동물 입양 최대 25만원 지원

광주시는 유실·유기동물 입양활성화와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려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입양비는 광주시 지정 동물보호센터 4곳(광주시동물보호소, 첨단YB동물병원, 첨단우리동물병원, 다나동물병원)에서 입양한 개와 고양이에 대해 지원한다. 동물보호센터가 동물보호단체에 기증한 동물을 입양한 개인 입양자도 지원 대상이다.

입양비 지원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이며, 광주지역 거주자는 거주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금을 신청하고, 다른 지역 거주자는 유기동물이 발견된 주소지 자치구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입양비 신청자는 입양확인서, 세부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청구서, 입양예정자 교육수료증 등을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입양동물의 질병진단·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 부담한 금액에 대해 최대 25만원을 지급 받는다.

단, 입양비 지원금은 반려인 1명당 최대 3마리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https://apms.epis.or.kr/home/)에서 입양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내장형 칩으로 동물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만 입양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노병하기자

## 전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 완도서 개막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대통합의 장이자 화합과 협동의 스포츠 대축제인 '2024 전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26일 완도에서 개막해 이틀간의 열전을 시작했다.

'치유의 섬 완도에서 함께뛰자 하나로!'라는 구호 아래 22개 시군 1622명의 선수와 경기 임원의 합성과 함께 성대한 개막을 알렸다. 이번 대회는 게이트볼, 배드민턴, 론볼, 보치아, 육상, 파크골프 등 13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이 펼쳐진다.

개막식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선수단을 격려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뜻깊은 대회를 준비한 관계자와 완도 군민에게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장애인 선수의 순수한 열정과 뜨거운 도전정신은 200만 도민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며 "마음껏 체육활동을 즐기며 활력 넘치는 일상을 보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 전남도, 구례서 '건설산업기술 연찬회'

전남도는 27일까지 이틀간 구례에서 정중기 대한토목학회 회장, 이성로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장,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기술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건설 분야 수주량과 일자리 감소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계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한 전남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보 및 해상풍력 등 미래 전략 사업을 소개한다.

대한토목학회 회원은 물론 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 엔지니어링협회, 건설업체 등 여러 관계자가 광주·전남 건설 관련 청년 대학생들과 함께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토목기술 발전 방향과 건설산업 도약 가능성을 살피고 고민하는 자리도 준비됐다. 오지현기자